

## 건재 선생이 사전 편찬에 남긴 이야기

이 강 로  
(국어학자)

건재 선생이 사전 편찬에 바친 정성과 노력은 외솔 선생이 큰사전 뒤에 발문 형식으로 쓴 “큰사전의 완성을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거친 세파 속에서 이 편찬 사무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천우의 건재(健在)로써 가장 오랫동안 중심적으로 각고 면려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룬 이는 정인승 님이요, 일제 때로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일한 이는 권승욱 님이요, 해방 후로부터 오늘까지 편찬에 힘쓴 이는 이강로 님이요, 주장 사전 사무를 맡아 본 이는 유제한 님이다.’ 이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재 선생님은 한글 학회의 사전 편찬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을 편찬 업무에만 힘쓴 분이다. 글쓴이는 해방 직후 편찬실에서 선생을 모시고 일한 때로부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특히 사전 편찬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은 너무나도 많았다. 해방 직후에 다시 사전 편찬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고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각처로 수소문한 결과 이 원고가 불순분자로 낙인 찍힌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증거물로 채택되어 함흥 검찰청에 압수되었었고, 일차 선고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하자 이 원고는 다시 서울로 우송되는 도중에 해방이 되어 서울역의 운송회사의 지하 창고에 있었다. 해방 뒤에 이것을 가까스로 찾아서 다시 편찬 업무에 들어갔고, 이때에 건재 선생께서 다시 사전 편찬 위원장이 되시었다. 그때에 건재 선생은 49세시고, 글쓴이는 28세이였다. 이 뒤로는 언제나 한 편찬실에서 사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여름이라고 생각된다. 편찬실에서 일대 연극이 벌어졌다. 원인 제공자는 바로 글쓴이이었다. 사전인즉 이리하다. ‘ㄱ’자 줄 올림말에 ‘궁둥이’라는 낱말이 있다. 이 낱말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하여 보니 ‘궁둥이, 궁뎅이, 엉덩이, 엉뎅이, 응뎅이, 응뎅이, 방뎅이, 방뎅이……’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궁둥이 계통의 낱말은 ‘ㄱ’자 줄에서, 엉뎅이 계통은 ‘ㄴ’자에서 방뎅이 계통은 ‘ㅂ’자에서 각각 카드를 찾아 내어 벌여 놓고, 건재 선생께 해결책을 물었다. 건재 선생의 말씀은 정중하였다. 사전의 주석은 낱말의 본질을 규명하여야 하고 낱말의 본질을 규명하자면, 당연히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거쳐 세밀히 연구 검토한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굴지 말고 각자가 연구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다시 세 개 계통의 서로의 관계에서 진정한 낱말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궁둥이, 엉뎅이, 방뎅이 등의 뜻이 백 퍼센트 같다. 그러니까 동일한 낱말로 보고, 그 중에서 표준말을 가려 내야 한다는 주장과, 이 주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3개 낱말 중 어느 것으로 표준말을 삼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별개로 남아 있었다. 다른 주장은 이 세 개 낱말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다. 그러므로 별개 낱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서로의 관련성의 특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엉뎅이’보다 ‘궁둥이’가 그 차지하는 범위가 넓고 더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지를 벗고 실지 검증에 들어갔다. 심부름하는 여자 아이는 편찬실 밖으로 내쫓고 각자 바지를 벗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열을 올렸고, 이거야 말로 요절할 진풍경이었다. 궁둥이와 엉뎅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자리에 닿는 부분이 엉뎅이이고, 궁둥이는 엉뎅이가 닿는 그 언저리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란한 검증을 겪고 나서도 두 주장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수선한 과정을 거치는데도 건재 선생은 결정적인 답안을 내리지 않은 채 이 주장은 다음날로 넘기고 다른 낱말의 주석으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난 뒤 이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이제 결말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두 주장은 다시 격돌하게 되었다. 그날도 두 주장이 서로 맞서서 좀처럼 해결이 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편찬실에서 나이 가장 많고, 서울 태생으로 서울의 풍속을 익히 잘 아시는 동운(東雲) 이중화(李重華) 선생께서 방증 자료를 제시하시었다. 동운 선생께서는 한성외국어학교에서 영문과를 전공하시고 배재학교에서 27년 동안 영어 교사로 계시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시는 중 서울 풍속과 고전(古典)에 밝으신 까닭에 조선어학회에서 이 방면을 맡으신 전문가이시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수반 시대에 함흥 감옥에서 영어의 고생을 하시다가 풀려 나오신 뒤에 다시 조선어학회

에서 편찬 업무를 보시었고, 육이오 동란 때 이북으로 납치되시어 생사를 모르고 이제까지 지내는 중이다. 이 어른의 방증 사실을 소개한다. 조선조에서는 유교사상이 정신사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 중에서도 남녀에 관한 예절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였다.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가 일곱 살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서로 함께 앉거나 대면하지 않는다[男女七歲不同席]'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었다. 이런 연유에서 양반의 집안에서는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남녀 하인(下人) 한 사람씩은 당연히 두게 되어 있었다. 이런 사회에서 같은 양반이 다른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는 으레 '이리 오너라'하고 부른다. 그러면 이쪽 하인이 '예!'하고 나간다. 그러면 어디 사는 아무개 어른이 오셨다고 여쭙워라 하면 하인이 이 말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고, 비로소 주인과 손이 대면하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인들이 모두 집에 없고 주인의 부인이 혼자 있을 때 손님이 찾아 와서 '이리 오너라'하고 불렀을 경우에는, 부인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이럴 경우에는 주인 부인이 하인으로 변신하여 '안 계시다고 여쭙워라'하고 대답한다. 이것은 주인의 양반 부인이 동시에 양반집 여자 하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진풍경의 하나이겠으나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었다. 당시는 '내외(內外)한다'하여 양반집 부인이 외간 남자와 말을 주고 받거나 한 자리에 앉거나 하면 큰 번고로 알던 때이므로 이런 풍습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었다. 조선조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 풍습이 약간 발전하였다. 부녀자들이 외간 남자와 얼굴을 마주 대해서는 안 될 처지에 혹시 마주치게 되면 슬쩍 돌아서서 요긴한 대화를 한다. 이런 경우 멀리 피하여 정식 내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궁둥이만 돌린다는 뜻에서 '궁둥이 내외'란 말이 생기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궁둥이 내외'라고만 말하고, '엉덩이 내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의 속뜻에서는 은연히 '궁둥이'와 '엉덩이'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건재 선생께서 판단할 차례가 된 것이다. 건재 선생께서는 이 '궁둥이 내외'란 말은 실지로 사용하되 '엉덩이 내외'란 말은 쓰지 않는다는 데 근거하여 '궁둥이'와 '엉덩이'가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여야 이 설명을 바탕으로 사전 주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건재 선생께서는 '궁둥이'는 '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라 하고, '엉덩이'는 '불기의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쯤 되면 '궁둥이'와 '엉덩이' 문제는 그런 대로 해결되었으나 느닷없이 등장한 '불기'와 '궁둥이'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되었다. 여러 시간의 논란 끝에 결국 '불기'는 '뒤쪽 허리 아래로 허벅다리 위의 좌우쪽으로 살이 두둑한 부분'이라고 결말을 지었다. 이상은 긴 사전 편찬 동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 편찬에서는 이와 같은 토론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로서는 사전 편찬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알은 데다가 참고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는, 거친 땅을 개간하는 작업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럴 경우 건재 선생께서는 정연한 논리와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판단으로 하나하나를 해결하여 나갔다. 건재 선생께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한문 서숙에서 한문을 배울 때, 15세 무렵에 서경(書經)의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읽으시었는데, 한문 선생이 풀지 못하는 그 심원한 이론을 똑똑하게 풀어서 그의 고향에서 천재(天才)란 칭찬을 듣던 분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연희전문학교(현재의 연세대학) 1기 출신으로 영어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라도에 있는 고창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계시다가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업무를 맡게 되시었다. 그만큼 한문 영어 수학들에 능통하신 데다 천부적인 논리적 사고와 넘치는 재치로써 그 어려운 사전 편찬의 얽히고 설켜진 문제를 빈틈없이 풀어 나가시었다.

이 밖에도 사전 편찬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이 ‘이다’ 문제이었다. 이 ‘이다’는 이름씨에 직결되는 형태로서 “이다, 이고, 이면, 이지……”들과 같이 ‘이’라는 줄기[語幹] 아래 ‘씨끝’이 붙어서 끝바꿈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런 특색으로 말미암아 사전 편찬에 직접 간여하는 건재 선생과 외솔 최현배 선생, 일석 이희승 선생 세 분의 학설이 모두 달랐다. 외솔 선생께서는 움씨씨, 그림씨와 같은 범주에 넣어 잡음씨를 주장하시고, 일석 선생께서는 어미(語尾)의 일종으로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終結語尾)라 하시었고, 건재 선생께서는 토씨의 일종으로 풀이의 구실을 하는 기능을 가졌다 하여 ‘풀이토씨’라야 옳다고 주장하시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다만 이렇게 크게 다른 세 주장 중 어느 하나를 가리어 그것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서는 사전 편찬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을 알리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외솔 선생의 잡음씨를 표준 삼기로 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편찬 업무에 직접 간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큰사전은 1929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957년 6권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28년이란 긴 세월이 소요되었고, 건재 선생께서 1938년 쯤부터 이 사업에 중심적으로 각고 면려하였으니 20년이란 세월을 사전 편찬에 바친 셈이다. 이 시기에는 사전 편찬에 관한 참고 자료는 거의 없었으니 모든 업무가 건재 선생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창작에 가까웠다. 사전 편찬은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복잡한 업무이

다. 우선 사전에 수록할 수 있는 낱말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온 범위의 낱말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적인 어휘는 물론이요, 정치, 철학, 종교, 문화, 사회…… 등 인류의 생활에 나타나는 정보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용기 만드는 일에 관련된 어휘만도 수백 개의 어휘가 있고, 활[弓]에 관한 어휘만도 800여 개나 된다. 이런 것들 중에서 큰사전에 알맞는 것을 간추린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수집된 어휘의 서로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 다음으로 가려 뽑은 어휘에 대한 적절한 주석을 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즉석에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건재 선생이었다. 이러한 일을 오래 해내는 동안에 건재 선생으로서는 이 방면에 하나의 주관이 뚜렷하게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어떠한 풀기 어려운 문제이건 건재 선생의 눈을 거치면 정확하게 해결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건재 선생은 우리나라 사전 편찬사(編纂史)의 길을 닦은 선구자요, 빛나는 업적을 남긴 거룩한 사전 편찬 학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사전 편찬의 이론서만도 수백 종이 나 되고 세계적인 사전 편찬 협의 기구(機構)까지 설립되고 월간 전문지도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이론서<sup>1)</sup>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과 건재 선생이 직접 집필한 사전의 내용과를 비교하여 본 결과 많은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은 철학이라는 말이 과연 헛되지 않음을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사전은 그 편찬 대상이 말[言語]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전공으로 하는 언어학자가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어학자로서도 모든 전문 분야나 모든 지역에서 쓰고 있는 말을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말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를 '사전'이라는 틀에 넣어 그 기술 방법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술의 체계화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선 올림말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말 밑에서 각 올림말의 형태적 의미적 관련성을 질서 있게 기록하고, 다시 이 기록된 어휘의 뜻(meaning)을 정확하게 풀이하여야 하는데, 이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반면, 그 경계가 자로 그은 듯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궁둥이'와 '엉덩이'의 처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그 고충을 호소하였으나, 이 개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본 보기를 하나 더 들어 보이기로 한다. 우선 토박이말과 한자말의 대립 현상에 대

1) 이 책의 원명은 R.R.K Hartmann(1983), *Lexicography : principles and practice* 이고, 일본에서 '辭書學'의 原理と實際 木原研三 加藤知己 翻譯監修(三省堂 發行)으로 번역되었다.

한 낱말로서 ‘똥’과 ‘대변(大便)’, ‘오줌’과 ‘소변(小便)’, ‘뒹간’과 ‘변소’, 이 세 개의 어휘를 관찰하기로 하자. 얼른 생각하기에는 ‘똥’과 ‘대변’은 똑같은, 즉 동일한 어휘인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그 쓰임을 관찰하면 그렇지도 않다. 사람인 경우에는 ‘똥을 누다’, ‘대변 보다’, ‘똥이 묽다’, ‘대변이 묽다’들로 완전한 한뜻말[同意語]로 쓰인다. 그러나 사람 이외의 동물에는 ‘똥’은 쓰이어도 대변은 쓰이지 않는다. 즉 ‘쇠똥[牛糞]’이라고는 하지마는 소대변이나 쇠대변, 또는 소가 똥을 누다라고는 하지만 소가 대변을 본다 또는 소가 대변을 누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즉 배설물이나 배설하는 동작은 같지만 쓰이는 대상이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별개의 어휘로 볼 것이지, 동일한 어휘는 아니다. 이미 동일한 어휘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면, 그 주석도 달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주석 방식도 ‘똥’은 사람과 다른 동물에도 두루 쓰이지만 ‘대변’은 사람의 똥에만 쓰인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똥’이라는 ‘이름씨’가 ‘누다’라는 움직임씨와 이어질 때에는 이 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럴 경우 ‘철수가 똥을 누다’, ‘철수가 대변을 본다’고는 하지만, ‘얼룩소가 대변을 본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여기에서 똥과 대변이 적어도 그 사용 대상이 다르고 따라서 별개 어휘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다시 체계 문제로서 ‘똥’과 ‘대변’이 별개의 어휘라면, ‘오줌’과 ‘소변’의 관계도 동일한 체계로써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낱말과 이어지는 기능(function) 면에서 고찰하여 보자. ‘누다’라는 움직임씨는 ‘똥’ ‘오줌’들과 이어져 ‘똥 누다’, ‘오줌 누다’라고 쓰인다. 그러나 이 말이 ‘대변’이나, ‘소변’과 이어져, ‘대변 누다’, ‘소변 누다’라는 말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시 ‘보다’라는 낱말과 이어졌을 경우에는 ‘대변 보다, 소변 보다, 뒤 보다’라는 말로는 쓰이지만 ‘똥 보다, 오줌 보다’라는 말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로로 ‘똥’과 ‘대변’, ‘오줌’과 ‘소변’과를 대응시키고, 세로로 ‘누다’와 ‘보다’와를 관련시켜 그 이어지는 관계에서 두 낱말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실지의 언어 사용에 적합한 사전이 될 것인데, 우리 나라의 실정에선 이런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사전 편찬의 연구 기관이 설립되어 풍부한 자료로써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보기의 대상으로서 하필 더러운 ‘똥’과 ‘오줌’을 내세우느냐고 탓할지 모르나 사전 편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실이기에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앞에서 제시한 낱말 아래에 ‘누다’와 ‘싸다’가 이어지면,

똥 누다 : 똥 싸다.

오줌 누다 : 오줌 싸다.

가 된다. 이럴 경우 사전 편찬원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여야 한다. 하나는 '올림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뜻풀이'의 문제이다. 올림말로 채택할 경우에도 두 가지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똥, 오줌, 누다, 싸다, 따위의 기본 어휘만을 싣고, 그것으로 그칠 경우와 이 4개 기본 어휘를 싣고, 다시 여기에 '누다', '싸다'가 이어진 4개 어휘도 올림말로 채택하는 경우이다. 뒤엣 것은 두 낱말이 한데 어울리어 익어진 합성어로 볼 경우이다. 이럴 경우 두 낱말이 어울리는 정도에 따라 아주 한 낱말로 익어졌느냐, 두 낱말이 일시적으로 어울렸을 뿐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녹아 붙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두 낱말이 어울리는 관계를 측정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복잡하다. 여기에는 깊은 언어학적 이론이 잠재해 있다. 이런 면에서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을 다루면서도 이와 별개로 언어학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사전 편찬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보편성과 전문성을 아울러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름씨와 풀이씨가 어울린 합성어로 보아 올림말로 채택하자는 데에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건재 선생께서도 찬성하시어 이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무난히 넘어갔다. 다음 뜻풀이에서는 '누다'와 '싸다'를 의미면에서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두 낱말이 의미면에서 완전히 같다고 하면, 동일하다는 것이 어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느 것으로 표준말을 삼느냐로 귀결될 것이고, 만약 다르다면 그 다른 점을 똑똑히 밝혀야 사전 주석이 정확하게 된다. 편찬원끼리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끝내 위원장인 건재 선생 주재하에 편찬 회의가 열리었다. 물론 건재 선생께서는 여러 주장을 경청할 뿐이고 결론이 이끌려 나오기 전에는 이론상 모순되는 점만 지적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자 건재 선생께서는

똥 싸 주제에 매화 타령한다.

아기가 오줌 싸 것 같거든 뉘어라.

똥싸개, 오줌싸개

들의 '싼, 쌀, 싸' 들을 '눈, 늘, 누'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기로 들어 두 어휘의 의미적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 대립되었던 주장을 귀일시키었다. 다음에는 이 두 어휘의 낱말을 그 쓰임에서 분석한 결과 '싸다'나 '누다'가 몸 안에 있는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어 보내는 점은 같다. 그러나 '누다'는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설하고 '싸다'는 배설하여야 할 정상적인 위치 이외의 장소에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설한다는 원칙에 완전 동의하여, 이 뜻을 바탕으로 뜻풀이를 차질 없이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보기를 들어 그 해결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대충 설명하였다. 사전 편찬은 박학(博學)하면서도 정세(精細)하여야 한다. 편찬 업무에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풀기 어려운 마디에 걸리면 모두 건재 선생께 그 해결 방법을 물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라도 그의 눈만 거치면 막힘 없이 해결된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건재 선생은 사전 편찬에 알맞는 여러 특성을 골고루 갖추었고, 이 특성을 편찬 업무에 남김 없이 반영시키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사전 편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사전 편찬사를 엮을 때에는 건재 선생이 남기신 업적은 길이 빛을 드리울 것이고 또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